

해외양돈뉴스

WORLD PORK NEWS



미국

미 최대 양돈회사 스미스필드푸드 & PSF 합병

지난 9월 18일 Smithfield Foods(스미스필드푸드)사와 Premium Standard Farms(PSF)사는 이사회를 거쳐 스미스필드사가 PSF사의 공모주 전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 계약을 만장일치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미스필드사는 미국 내 최대 양돈회사로 연간 매출액이 110억달러에 달하는 냉장 돼지고기 및 가공육 생산 회사이며, PSF사는 생산부터 판매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뤄진 대표적인 회사로 미국 내 제2위 양돈회사, 6위의 돼지고기 가공회사로 지난 6월 24일 종료된 2006 회계연도 1분기에서 8억8천만달러의 당기순매출과 4천530만달러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한편 합병과 관련하여 스미스필드사의 Larry Pope 사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돈육 수출량 증가 전망

미국 농업부(USDA)가 최근 발표한 3/4분기 농산물 무역전망에 따르면, 2007년 농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올해 전망치보다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돼지고기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축산물, 가공육, 낙농품 수출액은 지난 전망보다 2억 달러 상향조정된 13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수출량은 6만톤이 상향조정되어 106.5만톤, 수출액은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 홍콩, 한국, 러시아로의 수출이 증가

하고, 돼지고기와 쇠고기 수출단가는 미국 내 생산증대로 인해 감소할 전망이며, 달러의 약세가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생축과 적색육 수입액은 23억 달러, 54억 달러로 각각 하향조정 되고, 생우와 돼지 수입액도 하향조정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많지 않을 듯

내년, 03년 절반인 12만톤 수입 예상

지난 9월 재개된 일본의 미 쇠고기 수입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07년 일본의 미 쇠고기 수입량은 03년 절반 수준인 12만톤에 이를 것으로 미 단체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위생 조건 및 공항만 검역이 엄격해진데다 20개월령 이하의 소로 제한돼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생후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는 전체 생산량의 8% 이하로 공급량이 많지 않다. 또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때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키로 한 것도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일본이 미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첫달 수입량은 105톤으로 03년 월평균의 5% 수준을 기록했다.

칠레산 돈육 수입 늘 듯

EPA 체결... 저관세 적용

일본의 칠레산 돈육 수입이 늘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본정부는 칠레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연계협정(EPA) 교섭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은 칠레산 돈육과 쇠고기에 대해 저관세수입폭을 설정, 나머지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내년부터 칠레산 돈육과 쇠고기의 일정량에 대해 현재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중국

정체불명 돼지 질병 발생

지난 6월~9월 중국 남부 후난, 장시, 안위, 장수, 후베이, 제장 지역에서 고열을 일으키며 피부가 붉어지고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 질병이 발생해 이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E(국제수역사무국)는 역학조사를 통해 582개 샘플을 조사 분석했으며, 분석결과 이번 질병은 돼지열병과 PRRS와 썬코바이러스 질병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582개 샘플 중 263개(45%)는 PRRS에 양성을 보였고, 167개(29.2%)가 돼지열병에 양성을, 17개가 오제스키병에 양성을, 47개가 호흡기성 전염병에 양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발견된 질병은 계절성을 갖고 있어 주로 6월~9월까지 발생하며 양쯔강 주위 지역에 나타나 지역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염성과 폐사율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급격히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돈사료량 크게 줄어

상반기 전년보다 25% 감소해

중국의 양돈사료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사료 생산량(배합+농축+첨가제혼합용)은 4천300만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감소했다. 이 가운데 양돈용 배합사료와 농축사료의 생산량은 05년 상반기 대비 각각 25% 적게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합사료의 생산량 하락폭은 98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사료 가격은 1.84위안/kg으로 일년전

에 견줘 4%가 낮게 형성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2000년 이후 매년 10% 돈육생산량 증가세

베트남의 돼지고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그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베트남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 220만톤으로 00년 141만톤에 비해 56% 가량 증가했다. 또한 01년 152만톤, 02년 165만톤, 03년 180만톤, 04년 201만톤으로 매년 10% 안팎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은 국가별 돈육 생산량 순위에서 00년 10위권 밖에서 05년 7위로 크게 상승했다.

한편 베트남은 92년 이후 정부차원에서 남은 식량을 이용해 축산을 활성화시키고 육류의 소비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또 전체 인구 중 75~80%가 농민이며 이 가운데 양돈업을 경영하는 비율이 85%에 달한다.

EU

돼지고기 소비량 증가 예상

유럽연합(EU)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EU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04년과 0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던 EU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3년 44.1kg으로 지난해 42.8kg에 비해 3%가량 늘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신규 회원국들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또 다른 육류의 경우 쇠고기는 올해 다소 증가하지만 이후 크게 늘지 않아 20kg대에 머물며 가금육은 05년 대비 3.8% 가량 증가한 24kg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돼지고기가 EU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육류 자리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EU의 국가별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을 보면 스페인이 61.7kg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

(58.2kg)와 오스트리아(56.8kg)가 그 뒤를 이었다.

| 러시아

미국산 돼지고기 일부 수입금지 조치

러시아 정부는 미국 PSF(Premium Standard Farms)사가 수입 보건기준을 어겼다는 이유로 미국산 돼지고기 일부를 수입 금지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농림부 장관은 지난 9월 22일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주리주의 PSF사 밀란가공장이 수입 위생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모스크타임스는 밝혔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돼지고기 수입 502,000톤을 기준으로 고정관세를 적용해 4년간의 수입을 결정했으며 매년 수입량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한바 있다.

| 프랑스

광우병 발생

프랑스에서 올 들어 여섯 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최근 수의과학검역원은 AFP 보도를 인용, 프랑스 중부 부르고뉴주에서 지난 8월 살처분 된 소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광우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프랑스에서는 금년들어 6마리의 광우병이 발견됐다. 이 소는 12년생 젖소로 96년 동물사료 금지법 이전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호주

극심한 가뭄피해로 농업 생산 큰 차질

최근 호주가 극심한 가뭄으로 농업생산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는 가뭄으로 인해 곡물 생산량이 36% 감소 또는 그 이상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뭄은 호주 정부가 수립된 이래 가장 극심

한 것으로 기록되어 농업부분 피해는 지난 2002년 가뭄 때 70억 달러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 캐나다

돼지고기 수출 증가 전망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 가운데 수출 비중이 더 늘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미 농무부는 올해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량은 193만톤으로 지난해 보다 약 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수출은 일본과 멕시코, 러시아로의 수출이 늘면서 05년 대비 3% 가량 증가한 111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생산량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대비 소폭 오른 58%를 기록, 6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9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3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90년대 초반 돈육수출은 30만톤 규모로 전체 돈육 생산량의 25% 가량 차지했었다. 돈육 수입량은 올해 16만톤으로 지난해에 견줘 13% 늘며 특히 미국, 덴마크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농무부는 예상했다.

|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소비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미국 농무부(USDA)에서 발표한 세계 주요국가의 돼지고기 생산량과 소비량 예측 결과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일본 생산량은 지난해 126만톤, 올해 124만톤으로 추정되면서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 생산량은 지난해 105만톤, 올해 101만톤으로 추정되면서 3.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국, 브라질, 러시아는 올해 생산량이 각각 5천90만톤, 282만5천톤, 190만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각각 4.0%, 5.8%씩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